

WBC 아쉬움 씻는다

## 피겨 퀸의 ‘아름다운 도전’

〈김연아〉

세계선수권 최고점수 위해 ‘숨은 1점 찾기’

약점 트리플 루프 대신 더블악셀에 ‘올인’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첫 우승 도전에 나선 김연아(19·고려대)가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숨은 1점 찾기’에 나섰다.

지난 24일(한국시간)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진행된 여자 싱글 오후 훈련에 나선 김연아는 현지 도착 이후 처음으로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인 ‘세하라자데’를 연기했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 프리스케이팅에서 자신의 약점으로 손꼽혔던 트리플 루프를 더블 악셀로 바꾸는 변화를 선택했다.

김연아는 지난해 10월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 때 트리플 루프를 싱글로 처리하고 나서 3차 대회와 그랑프리 파이널 때는 트리플 루프 대신 더블 악셀을 뛰었다.

지난달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의욕적으로 트리플 루프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결국 이번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는 안정적인 연기를 위해 더블 악셀을 뛰기로 했다.

하지만 김연아는 단순히 안정적인 요소만 선택하지 않았다. 김연아는 차트 프로그램 이 빛나는 면을 살렸다. 차트 프로그램은 판단에 따라 4대륙선수권대회 이후 안무가 데이비드 월슨과 함께 프리스케이팅의 세부 항목에 변화를 줬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프리스케이팅 두 번째 과제인 더블 악셀에 앞서 김연아의 장기 중 하나인 이너바우어(허리를 뒤로 깊게 젖히고 활주하는 기술)를 붙이는 것이다. 김연아의 이너바우어에 이은 더블 악셀은 피겨 팬들에게 낯설지 않다. 김연아는 지난 2006~2007 시즌부터 시니어 무대에 뛰어들면서 지난 시즌까지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을 항상 이너바우어에 이은 더블 악셀로 장식했다.

김연아는 이번 시즌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더블 악셀을 시도할 때는 이너바우어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그랑프리 파이널 때는 포함했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 더블 악셀을 뛰기로 결정하면서 이너바우어를 붙여 예술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따내겠다는 작전을 세웠다.

또 다른 변화는 ‘손끝 연기’다.

김연아는 더블 악셀 이후 트리플 러츠-더블 토토루프-더블 루프 롬비네이션 점프를 뛰기 위한 준비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손동작을 조금씩 바꿨다. 더욱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안무에 조금씩 변화를 준 것이다.

김연아의 매니저먼트사인 IB 스포츠의 관계자는 “한 시즌 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지켜봐 온 심판들이 기존 프로그램에 짜증을 내지 않도록 조금씩 변화를 줬다”며 “전반적으로 예술적인 면을 부각시켜 점수를 더 끄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환상의 콤비’

이스라엘 에카테리나와 폐도르 조가 25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09 ISU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 폐어 쇼트프로그램 경기에서 환상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의  
★



김태균

봉중근

이범호

김현수

### 베스트 12명 중 4명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팀을 준우승으로 이끄는 데 최고의 활약을 펼친 김태균(27·한화), 봉중근(29·LG), 이범호(28·한화), 김현수(21·두산)가 세계 야구의 별로 떠올랐다.

WBC 조직위원회는 25일(한국시간) 이번 대회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로 구성된 ‘올 토너먼트 팀’을 발표했다.

각국 기자단의 투표로 결정된 ‘올 토너먼트 팀’은

### 국민 10명 중 7명 “한국야구 있어 행복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제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한국의 선전을 보고 행복감을 느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WBC 결승전이 치러진 24일 하루 전국의 만

팀 4번 타자 김태균(1루수)은 쿠바의 ‘해결사’ 프레데릭 세페다와 함께 민장일치로 올 토너먼트 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일본전에서만 1승을 올리면서 ‘의사(義士) 봉중근’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에이스 봉중근도 3명의 투수 중 한 명으로 뽑혔다.

김태균과 함께 홈런 3개로 공동 1위에 오른 3루수 이범호와 지명타자 김현수도 포지션별 최고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9%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표팀 최고 선수로는 홈런과 타점에서 선두에 오른 ‘김해결사’ 김태균(한화)이 43.6%의 지지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의사 봉중근’이라는 별명을 얻은 봉중근(31.1%), 추신수(16.5%), 윤석민(6.3%) 등이 뒤를 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9%가 찬성, 24.3%가 반대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

/연합뉴스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WBC 결승에서 일본에 패해 준우승한 한국팀 선수들이 은메달을 목에 걸고 그라운드에서 있는 가운데 이용규만 메달이 없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 이용규만 메달이 없다, 왜?

네이션 “일본전 분배 아쉬움 표현일 것”

에게 바치려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또 한 네이션은 일본전 분배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네이션은 “일본에게만 두번이나 머리부상을 당한 이용규가 은메달을 못 삼기고 메달을 안 건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는 이용규의 이 같은 행동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본인의 자유에 따라 메달을 목에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용규가 메달을 목에 걸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별히 나온 이야기가 없다”고 설명했다.